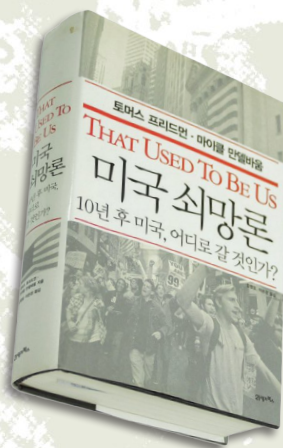


서평, 책에서 지혜를 얻다



『미국 쇠망론』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yhlee@cerik.re.kr

토머스 프리드먼 · 마이클 만델바움 지음, 강정임 · 이은경 옮김/21세기북스

『미국 쇠망론(衰亡論)』의 원제(原題)는 『That Used to be Us』이다. 우리말로 ‘왕년에 우리 미국은 이랬었지’ 정도의 번역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예전에 미국은 잘나갔는데 요즘은 형편없다는 것을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의역(意譯)하고, 한 걸음 더 나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번역자는 ‘미국 쇠망론’이라는 책 제목을 뽑은 것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본서는 토머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만델바움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 차례나 풀리처상을 수상한 저명한 언론인 겸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아울러 그는 『뉴욕타임스』의 인기 칼럼니스트이자 세계적인 국제 분야의 전문가이다. 특히, 국제 질서와 외교 관계, 세계화 및 중동 문제에 관해 쓴 프리드먼의 칼럼은 깊이와 대중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저자인 마이클 만델바움은 미국의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복잡다단한 국제외교 역학의 의미와 결과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특히, 아시아·중동·유럽 지역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들어가는 글에서 “우리의 대화는 과거 미국에 대한 회상과 겉으로 보기에 현재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그들은 “현재 미국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건실하지 않

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공저자(共著者)는 “이 책에서 미국이 어떻게 현 상태까지 왔고,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서는 5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진단에서는 최근 중국의 발전상을 미국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전성시대 도래를 경계하였다. 공저자는 미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5개의 기둥을 ‘아메리칸 포물리의 5개 부문’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그 성공의 비밀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쇠퇴에 대한 4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미국의 사회 현상을 교육 문제(제2부), 수학과 물리학 전쟁(제3부), 정치적 실패(제4부)로 나누어서 문제를 짚어보았다. 마지막 5부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의 가치관과 이상(理想)을 다시 결합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포물리와 우선순위,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관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즉, 미국 역사를 다시 짚어보고 그 역사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의미에서 ‘미국의 재발견’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하면서 책을 마무리하였다.

본서의 첫 문장인 제1부(진단) 제1장의 제목이 ‘뭔가를 봤으면 말하라’이다. 이는 저자들의 도발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그들은 중국 텐진

시에 건립된 23만 평방미터(약 7만평)의 컨벤션 센터가 8개월 만에 준공된 것과 저자들이 출근하는 워싱턴 D.C.의 메트로 전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짧은 에스컬레이터 2대의 수리(‘대형 에스컬레이터의 현대화 프로젝트’로 명명)에 무려 6개월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하였다. 저자들은 이 사례를 통해 현격한 차이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이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크게 지적하였다. 본서는 분명하게 미국의 전성시대는 지나갔고, 중국의 전성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저자는 본서에서 아메리칸 포물러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이라는 미국만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5개의 기둥을 말한다. 첫째 기둥은 더 많은 국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한 것이다. 둘째 기둥은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둥은 이민자들을 위한 미국의 문을 언제나 개방하는 것이다. 넷째 기둥은 기초 연구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다섯째 기둥은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필요한 규정들을 갖추는 일이다.

이에 반하여, 본서는 미국의 느린 쇠퇴가 일어난 배경으로 4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냉전 종식 후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 수립이 중단되었다. 둘째, 미국은 한 국가로서 지난 20년 동안 교육, 적자와 부채,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을 풀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위대함에 바탕이 되어 왔던 전통적인 아메리칸 포물러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은 그동안 스스로의 문제점을 바로잡거나 미국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저자는 미국 토목학회(ASCE)가 주기적으로 발

행하는 ‘미국 사회기반시설 성적표(American Infrastructure Report Card)’의 등급과 내용을 인용하였다. 책에는 2009년의 D등급(최근 발행한 2017년 성적은 D+) 평가와 B등급으로의 개선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2조 2,000억 달러(약 2,500조원)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아울러 미국 사회기반시설이 수십 년에 걸친 예산 부족과 무관심으로 위협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ASCE 소속의 엔지니어 인터뷰 내용도 게재되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비용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만큼 긴급하고 절박한 사항입니다”라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에드 렌델의 발언을 재인용하였다. 또한, 저자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이외의 4가지 기둥에 관한 상세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였다.

저자가 미국 번영의 다섯 기둥의 하나로 거론한 미국 인프라의 재건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이슈가 되어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히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였던 10년 간 1조 달러 투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되지 않도록 미국 국민과 건설업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최근 미국 출장에서 확인하였다. 아울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과 재정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PPP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완비도 확인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SOC 예산 삭감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고, 노후 인프라 관리가 작금(昨今)의 화두가 되어 있는 최근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국 쇠망론』의 일독(一讀)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END)